금주의 법구-〈법구경〉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긴 고통을 받지 않게 하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17일)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韓日불교 환경선언 必환경 실천 기틀

## 제39차 한일불교교류대회 日 중앙사서 성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가 찾아온 오늘날, 한국과 일본불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에 불교의 역할을 모색했다. '환경문제와 불교'라는 주제 아래 양국 불교계는 자연재해 희생자의 영혼을 추선 공양하고, 세계평화의 항구를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6월 1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츄오지(中央寺)지에서 한일 불교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불교발전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39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계는 이번 대회 주제를 '환경문제와 불교'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각국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이날 세계평화기원 법요식에서 "우리는 불교를 흔히 '숲의 종교'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숲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으셨고, 가르침을 펼치고 열반하셨다"면서 "한일 양국 불교도 깊은 산중 사찰에서부터 도심에 이르기까지 뭇 생명과 교감하며 발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이번 대회가 다가올 미래세대에 대비해 양국 불교가 생태적 전통을 어떻게 조명하고 향유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도 이에 공감하며 "모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고심하는 것은 환경문제와 불교와의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 불교계는 생명을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불교도는 세계적인 지진과 산불, 호우 등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앞으로 불교계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지진이나 그리스 산불 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의 영혼을 추선 공양하고 더불어 세계평화의 항구를 기원하며, 불과(佛果)의 증진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 불교계는 학술대회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방안과 역할 등을 모색했다. '환경문제와 불교의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서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찰들도 자연과 조화롭지 않게 입지하거나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자체 및 개발업체 등 외부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되기도 한다"면서 "불교계는 가치적 · 제도적 ·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단과 시민사회단체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환경보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국 불교계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병인 교수는 그 일환으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불교환경선언 △환경지침서 발간 △양국 대표종단에 환경전담기구 설치 및 교류 등을 제안했다.

일본 측 발제자인 대정대학원 원장 코미네 미츠히고 스님은 연기법에서 환경문제와 불교의 관계를 살폈다. 미츠히고 스님은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한편으로 인간이 관여해 일으킨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로부터 발생된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결국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든다"고 설명했다.

**韓日불교지도자 200여 명**
**환경문제 불교 역할 모색**
**미래세대 위한 활동 공감**

**양국 공동선언문 채택하고**
**"자연재해 희생자 극락왕생"**
**전문가들 실천방안 제언도**

스님은 이어 "초목국토실개성불(草木國土悉皆成佛)은 인간을 둘러싼 초목에는 인간과 같은 마음이 없더라도 모두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돌이나 바위도 해당한다"며 "바꿔 말하면 자연환경은 부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자체도, 그곳에 사는 우리도 모두가 부처의 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한국 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이 참가했다.




**자장율사 향훈 느끼며 힐링을** 신라 고승인 자장율사의 향훈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이 개통됐다.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6월 8일 정암사 경내에서 자장율사 순례길 개통 기념식 및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정암사부터 적조암까지 이어지는 3.9km구간을 걸었으며,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도 염원했다. '자장율사 순례길'은 정암사에서 만항마을까지 총 4.2㎞로, 한반도에 화엄사상을 처음 들여온 자장율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사진은 자장율사 순례길 개통식 참가대중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정선군

# 조계종, 청소년포교 전략 변화 본격화

## 포교원 어청위 마스터 플랜 구성 착수

청소년 교육에서의 국가정책 변화에 맞춘 불교계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과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중장기 청소년포교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위원장 능후)는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청소년 포교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단체의 학교 내 활동 제한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탈학교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불교계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청소년 국가교육정책 변화에 맞춰 4월 24일 제78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이날 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연찬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정리와 이에 대한 포교원 포교연구실 등 종단 실무진 의견 청취, 전략과제 도출 및 향후 대응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5월 23일 연찬회 후속과제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측은 "사찰과 스님의 청소년 포교 필요성과 현재 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종단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등 과제가 있다"며 각급 주체별 제도와 정책 정비, 일반 교사 조직화의 포교주체 발굴, 일상생활 접근과 진로진학 등 공공영역의 접근, 디지털컨텐츠의 개발 보급, 종단 청소년 포교활동 네트워크 점검 및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아 제시했다.

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 포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먼저 기초자료 구성과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이대성 기획위원(스토리평생교육원 원장)이 3~5개년으로 중기 계획 초안을 작성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기획위원장 능후 스님은 "그동안 청소년 포교에서 큰 역할을 해 온 교육현장에서의 청소년 활동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교법사 외에도 청소년 포교에 관심있는 일선교사들의 조직화, 청소년공간 시범운영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계획을 짜고, 함께 대응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사찰음식 학인 최강자는 누구?

## 불교문화사업단, 8월 22~23일 사찰음식 경연대회

학인 스님과 일반인의 사찰음식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오는 8월 22~23일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제3회 한국사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2013년 봉은사, 2014년 세텍(SETEC)에서 열린 '사찰음식 대축제'의 한 코너로 마련된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별도의 대규모 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당시에는 개인 · 단체부문으로 나눠 경연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학인스님과 일반부로 구분된다. 학인 스님부는 22일, 일반부는 23일 본선이 펼쳐진다. 경연은 모두 2인1조로 진행된다.

학인 스님부는 '이야기가 있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사찰 혹은 은사에게 전수받거나 전해들은 것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사찰음식 메뉴 3개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선보이면 된다. 일반부는 '다가가기 쉬운 맛있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쉽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사찰음식 3가지를 조리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사찰음식의 조리 원칙에 따라 오신채(파 · 마늘 · 부추 · 달래 · 흥거-양파)와 동물성 식품,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서류접수는 7월 12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7월 29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 본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학인 스님부와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학인 스님부 최우수상 4팀에는 교육원장상 · 포교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3팀에는 문화사업단장상과 상금 70만원이 주어진다. 일반부도 서울시장상 · 한식진흥원이사장상 · 문화사업단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02)2031-2051 윤호섭 기자


#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단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원은 삼보를 호지하며 종단의 종헌종법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종단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종단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종단의 정당한 지시·명령에는 불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자회견 등 언론 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노동조합과 무관한 일반직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입니다. 종단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종단의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6대 집행부 출범으로 안정화 되고 있는 종단을 또다시 혼란스럽게 함은 물론 근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심각한 종법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대다수의 종무원들은 묵묵히 종무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종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종무와 무관한 사안으로 근무 질서를 흩트리며 종무수행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종무원들은 더 이상 종무와 무관한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루 속히 본연의 임무인 종무수행에 충실히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종도들과 불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께 일부 종무원들의 행위로 일어난 본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종교단체로서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 종단의 특수성과 종단운영의 자율성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종무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63(2019)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